일본에서도 이어진 4·3의 기억… 국제 특별전 도쿄 개막

지난 7일 민단 중앙본부서 개막식



제주4·3 국제 특별전이 일본 도쿄에서 개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일본 도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한국중앙회관 민단홀에서 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오랜 세월 제주4·3을 기억하고 추모해 온 재일동포 사회와 함께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혁 주일본대한민국대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 단장과 정문길 민단 중앙본부 사무총장, 송영민·김성종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부회장, 조동현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도쿄 회장, 이양수 고려박물관 이사장, 아사히신문 관계자 등 현지기관·단체 관계자와 재일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에서는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수석부회장과 양성홍 제주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위성곤 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빈과 재외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 지사는 "4·3의 아픔을 말할 수 없었던 시절에도 재일동포분들과 함께 지켜온 제주4·3의 기억이 기록으로 남아 세계기록유산이 됐다"며 "그 기억이 이제 세대를 이어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번 특별전은 제주4·3의 역사와 진상규명·명예회복 과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 일본에서 이어져 온 4·3의 기억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제주4·3평화공원의 '백비(白碑)'를 활용한 관람객 참여 공간도 마련됐다. 관람객이 '내가 느끼는 제주4·3의 의미'를 입력하면 해당 문구가 백비 모형에 투사되는 방식으로, 4·3에 대한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전시로 운영됐다.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상담 창구도 운영됐다.

제주도는 해외 거주로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신고와 보상 절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권리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제주 글로비트, 인니 스마트양식 인재 양성 추진

인니 해양수산부·K-GLSC 3자 업무협약



글로비트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 지도·인재개발청(BPPSDM KP), 한-인니 글로벌리더 인재양성 지원센터(K-GLSC)와 '해양수산 인재양성 및 스마트 기술 통합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MoA)'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의 수산 전문인력 양성 체계에 한국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양식 기술을 접목해 현지 양식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 지도·인재개발청은 교수와 수산지도사, 학생 등 참여 인력을 선발하고 자카르타 파사르민구의 수산전문대학 캠퍼스와 정부 소유 양식장을 시범사업 부지로 제공한다.

K-GLSC는 부산을 거점으로 국제 교육과정과 인증 체계를 설계하고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과 신청을 담당한다. 글로비트는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RAS)과 수질 측정용 IoT 센서, AI 기반 어병 예측 기술 등을 제공하고 현지 기술교육과 기술이전을 주도한다. 핵심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듀얼 허브 라이브랩' 구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산전문대학 캠퍼스에는 수소이온농도(pH)와 용존산소, 염분, 수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스마트양식 실습장과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ODA 사업 및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5년이다.

김형수 글로비트 대표는 "글로비트의 스마트양식 기술이 인도네시아 수산 인재들의 손에서 현장 기술로 자리 잡도록 설계 단계부터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동남아 스마트양식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했다.

감귤농협 이어 조천농협 노지감귤 수출 본격



제주감귤농협에 이어 조천농협도 2026년산 노지감귤의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조천농협은 지난 5일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거친 노지감귤을 러시아와 캐나다에 각각 20t씩 총 40t 선적하며 올해 노지감귤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천농협은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2026년산 총 300t 수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현지 마케팅 및 유통망 확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천농협은 러시아, 미주(미국·캐나다 등), 동남아시아 등 각 100t을 목표로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천농협은 체계적으로 수출 농가를 관리해 엄격한 선별로 제주 감귤 특유의 신선도와 맛을 현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제주감귤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영석기자

제주경찰청 개혁 방안 모색 '국민경청회'



제주경찰청(청장 김병찬)은 지난 6일 대회의실(탐라상방)에서 범죄피해자·가정폭력·아동보호 관련 단체, 2030청년, 소상공인 등 국민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청회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기대, 국민이 바라는 경찰의 변화 모습을 직접 듣고 경찰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경찰청별 순회 경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해 12월 중순쯤 제안 반영 결과와 개혁과제 이행 상황,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찬 청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제언이 제주경찰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찰의 기본을 바로 세워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제주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월남전 참전 제62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양형석)는 지난 3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월남전 참전 제62주년 기념식 및 호국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기관·단체장과 보훈·안보단체 관계자, 참전전우 및 유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민정·김대영 한국교원교육학회 논문상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고민정(왼쪽) 강사와 김대영(오른쪽) 교수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평가 도구를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두 연구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논문이 '2026년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지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다.

해당 논문은 '예비 교사 역량기반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평가도구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예비 교사의 역량 함양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도구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상식은 지난 7일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한국교원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